

2004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세시 풍속과 절기를 활용한 지역 어린이 환경교육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http://cafe.daum.net/maeulschool>

세시풍속과 절기를 활용한 지역 어린이 환경 교육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팀

1. 목 적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고, 그와 더불어 시대는 문명사적 변혁기에 걸맞는 가치관의 창출과 교육을 통한 일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존재의 성장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꼬인적 관계를 떠나서는 과편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세기의 교훈인 듯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일상적 관계 형성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한 교육의 이념을 상징하고 이제 맞는 지역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화두가 바로 생명과 평화이고, 그 내용은 바로 넓은 의미의 환경교육입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환경 속에서,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활동 교사들과 어울려 놀며 배우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 내용 및 방법, 추진 일정

가. 아름다운 마을학교 사업 내용

- 1) 주말학교 : 봄학기과 가을학기 2학기제로 격주 토요일 진행
- 2) 계절학교 : 여름학기(2주, 2박 3일 들살이)와 겨울학기(1주, 2박 3일 들살이)로 진행
- 3) 교육사랑방 : 봄·여름·가을·겨울 학기의 시작과 함께 학부모 공개강좌 형식으로 6회 진행

나. 사업별 운영 내용

1) 주말학교

가) 목 적

2003년 지역의 아이들과 진행했던 어린이 주말학교는 삶 속에 환경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가는 소중한 작업이었다. 북한산을 놀이터 삼아 일년 동안 우리가 놀이터라고 정한 곳의 생태적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나게 뛰놀았던 경험을 토대로 2004년에는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말학교를 통해 수유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면서 삶에서 환경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 2004년 어린이 주말학교 학기 구성

- (1) 학기 구성의 방향 : 현재 제도권 학교 교육의 학기제를 적용한다.
- (2) 봄 학기 : 2004년 3월 6일 - 2004년 7월 10일(격주 토요일, 늦은 3시-5시 30분)

(3) 가을학기 : 2004년 8월 28일 - 2004년 12월 18일(격주 토요일, 늦은 3시-5시 30분)

다) 학기별 교육 내용 구성

(1) 주 제 : 세시와 절기를 삶에 담은 생명평화 교육

(2) 내 용

- (가) 생명의 흐름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 세운 24절기와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 삶에 맞는 교육내용을 함께 만들어간다.
- (나) 자연과 몸을 부딪는 놀이로 만나고, 마음을 담은 이야기로 마친다.
- (다) 생명과 평화에 기초를 두고 삶의 터전과 교육 내용을 일치시키며 일상화해 나가는 작업에 중심을 둔다.

라) 봄 학기 운영 내용

(1) 봄학기 첫 만남

- (가) 주제 : 개구리와 벌레가 깨어나는 경칩 즈음에 우리는 만났어요!
- (나) 일시 : 2004년 3월 6일 토요일
-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마을학교에서 만나요!	아름다운마을학교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주말학교 입학설명회 처음 만나는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해요.	아름다운마을학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시디, 시디플레이어, 노래 가사집
4시 - 4시 30분	간식	아름다운마을학교	감귤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아름다운 마을학교 간판 만들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채색도구, 우드락, 우드락 커팅기, 골판지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 모둠별로 헤어지는 인사하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애들 데리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느끼는 하루였지만 너무 신나는 하루였어요.
좀더 놀고싶어하는 아이들은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다음에도 또 가?' 묻더군요.
14밤 자고 재운이, 재우 좋아하는 콩나물(집에서 직접 기른답니다) 묻혀서
도시락 싸서 간다고 하니 더 좋아라합니다.
두번째로 가보는 공간임에도 재운이는 형아들 똥침하며 춤추고
재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나뭇가지로 그린 겨울 풍경을 보고
작은 숲속에서 뛰놀며 긴장이 많이 풀려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한것 같아요.
많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선생님들 고맙구요.
같이 놀았던 친구들 이름 빨리 익히고 더 친해지고 싶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꽃필 때쯤 또 만나요~

(백재운, 백재우 어린이의 보호자 돌꽃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2) 봄학기 두 번째 만남

(가) 주제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 지난 경칩에 못 만난 개구리 만나볼까?

(나) 일시 : 2004년 3월 20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마을학교에서 만나요!	아름다운마을학교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15분	[모듬놀이 맘풀기] 1. 모듬별로 모이기 2.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3. 모듬 이름 정하기	아름다운마을학교	강강술래 대동놀이, 노래 가사집
4시 15분 - 4시 30분	간식	아름다운마을학교	감귤
4시 30분 - 5시 10분	[버리활동] 1. 낮과 밤 이야기 2. 개구리 울챙이 만들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색종이, 우유팩, 가위, 네임펜 등
5시 10분 - 5시 30분	작은 숲속 산책하기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주말학교 친구들!!

우리가 예쁘게 손작업한 아름다운 마을학교 간판 보고 왔나요? 아님... 엄마손에 이끌려 왔나요?^^

익숙한 걸음으로 씩씩하게 온 친구들도 있었죠.. 낯선 만남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것 처럼 조금은..아니 많이 힘들어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도..그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함께 했어요..

모듬별루 옹기종기 모여앉아..새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 쪽~~쪽~~보았죠.

서로 소개도 하구..눈도 맞추고.. 긴장되어 뽀뽀 언맘 스프르 녹이는 놀이도 했어요. 한판!!! 멋지게!!!

선생님 손.. 친구들 손..부모님 손 꼭 잡고..놓지 말구.. '남생아 놀아라~' ..'개구리 나와라~'
한편 놀때는 여자아이들도 나와 놀고 남자 아이들도 나와 놀고..
호랑이 띠도 나와놀 고.. 토끼띠도 나와 놀고.. 멧쟁이들도 나와 놀고..칭바지 입은 사람도 나와 놀고..
2학년 친구들도 나와 놀고..4학년 친구들도 나와 놀고.. 모두모두 나와 놀았어요..
4~7세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두 모둠으로 나뉘어 모뚱끼리 빙~돌러앉았어요..
간식도 먹구.. 한 모듬은 명심선생님과 개구리 올챙이 노래랑 율동을 같이했어요..
오~~~다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잖아..ㅋㅋ.. 땀이 나게 음악에 맞추어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었어요..
은영선생님이 해와 달 이야기 해주었어요..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었어요..
호랑이가 엄마랑 젓먹이 막내동생을 잡아먹는게 좀 무서웠지만...그래도 호랑이를 피해 우물가 소나무로
올라간 오빠랑 여동생이 해와 달이 되서 너무 좋았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다가 그만 쿵! 하고 나
무아래로 떨어져 죽었지요..헤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보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엄마는 어떻게 된거
지..?정말 죽은 걸까? 궁금했어요..어떻게 된거예요..?
또 한 모듬은 요가 수련실에 모여 재판 선생님과 개구리뛰기 놀이도 하고 수건 돌리기도 하면서 마음껏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손,,친구손,,오빠손..누나손 잡고 들썩 짝을 지어.. 횡단보도 건너..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숲속에 갔어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피해 탄 길로 가보았어요.. 시간은 조금더 걸렸지만 봄길을 걷는 기
분이 드는 조용하고 재밌는 길이었어요..
작은 숲속에서.. 여우야 여우야 놀이도 하고..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놀이도 했지요.. 친구들이 많으니깐 자
연스럽게 두세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예쁜 나뭇가지도 줍고.. 바위에 앉아 쉬기도 하구..꿈틀꿈틀대는 벌레
를 찾아 보기도 했어요..친구들은 선생님 몰래 숨는 것은 역시 언제 어디서 해도 숨넘어가게 웃기고 재밌
나봐요.. '모여라' 외치는 선생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찾으면 또 숨고 또숨
고.. 헉헉~~
그래도 생일축하하자는 말에 다 모였어요~~
마침 한빈이와 은영선생님 생일이었거든요.. 무지개 떡 케익 주위로 빙~ 둘러섰지요.. 잠시 눈을 감고 떠
보니 켜지도 않았는데 촛불도 보이구..ㅋㅋ 후~~불고.. 케익을 배부르게 나누어먹었어요..
해가 길어진 탓에 헤어질때까지 하늘이 밝고 환했어요..
다음 청명에 만날때는 더 밝고 환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찬밤에 봄나물 맛있게 비벼 먹는 날까지..안녕!!

(모듬교사 은영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3) 봄학기 세 번째 만남

(가) 주제 : 청명과 한식, 생명의 기운 느끼며 찬밥으로 비빔밥 만들어 먹기

(나) 일시 : 2004년 4월 3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30분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 생물 관찰하기 : 계곡과 숲속	작은숲속과 계곡	돋보기, 루빠, 노끈, 필기도구
4시 30분 - 4시 45분	마을학교로 이동	숲속에서 마을학교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봄 나물과 찬밥으로 비빔밥 만들어 먹기 2. 뒷정리하고 숲속에서 본 것 이야기하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양푼, 양념장, 봄나물, 도시락밥, 수저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우리가 만난 날은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였지요?

봄바람 때문에...

하지만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추위도 잊고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울챙이도 보고, 진달래 개나리도 보고...

자연과 함께 어울어져 노는 친구들의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세번째 만남을 가지고 나니 더 친해진것 같아요.

같이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잘 잡아 주기도 했지요.

각자 준비해온 밥과 나물을 한데 모아 비빔밥을 먹었지요.
 어떤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이라고 멋진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다시 만날 때는 모두의 예쁜 이름도 생각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손발을 잘 씻고, 양치도 꼼꼼히 잘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모듬교사 명심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4) 봄학기 네 번째 만남

(가) 주제 : 곡우비 맞으며 뱀씨를 뿌려볼까?

(나) 일시 : 2004년 4월 17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15분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8-12세 : 계곡에서 놀기 3. 4-7세 : 숲속에서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돋보기, 루빠, 노끈, 필기도구, 뜯채 등
4시 15분 - 4시 40분	마을학교로 이동 간식	숲속에서 마을학교로 아름다운마을학교	안전한 보행권 확보 쌀과자, 우유
4시 4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곡우, 뱀씨를 뿌려요. : 연극 놀이하기	아름다운마을학교	모찌기, 모심기, 밭갈이 등 농업노동과 관련된 민요 시디와 시디피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우리가 뭐하고 있냐구요.
뱀씨 뿌리기 전에 소에 쟁기를 얹어서
논을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이랴 이랴 하면서 소를 모는 농부 할아버지
노래 소리에 맞추어서
신나게 논을 삼았어요.
우리가 들은 노래가 궁금하면
자료실 일반자료실에 가 보세요.



곡우에 맞추어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뱀씨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좋은 것만 골라서 뿌려요.
이렇게 재미있게 씨 뿌리는 아이들 보신 적 있나요?



뿌린 볍씨가 적당하게 자라면요
 모찌기라는 걸 한데요.
 모판에서 모를 뽑아서 모내기 하기 좋게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철푸덕 앉아서 모를 정성껏 뽑고
 지푸라기로 묶어서 놓는 거예요.



모찌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모심기를 해요.
 "여기 콧고 저기도 콧아 삼배출 자리로 콧아주게"
 심은 것보다 세 배나 많은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리는 농부마음
 바로 우리들 마음이지요?
 모를 심고나서는 벼 아닌 다른 풀들을 뽑아주어야 해요.
 그걸 논매기라고 한데요.
 여름 더운 날 논에서 풀을 뿌리까지 뽑으며
 농사를 지었을 농부님들,
 요즘은 농약을 뿌리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곡식이 여물 때쯤이면 새를 쫓아야 해요.
 "후여 후여 이노므새야 오늘랑 까먹고 널랑 까먹지 말라
 저건너 구렁이 선비 장개가는디 놀러가야한다 후여 후여"
 참새한테 매정하게 하나도 까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나봐요. 오늘은 까먹어도 되는데,
 내일은 내가 놀러가야 하니까 내일은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말예요.



잘 여물어서 단단해진 벼를 추수하는 거예요.
 낫질을 해서 베고, 묶어 잘 말렸다가 타작을 하는 과정,
 쌀 한톨이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우리가 먹은 쌀과자 하나가 만들어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일년 농사를 마치고 모둠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쌀 한톨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농부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먹는 거 갖고 이렇게 장난하면 안될까요?
주말학교 어린이들!!!
5월 1일에 만나요.
그때면 벌써 여름이래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 "입하"라는 절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날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놀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만나요!!!

(주말학교 전체 진행자 살구나무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5) 봄학기 다섯 번째 만남

- (가) 주제 : 입하, 여름물이 가득한 숲속에서 만나자.
- (나) 일시 : 2004년 5월 1일 토요일
-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땀자리, 모뎀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돋보기, 루빠, 노끈, 필기도구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이나 계곡	방울토마토, 건빵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자연물을 이용한 여름나무 만들기 2. 풀잎 손수건 만들기 3. 나뭇잎 도감 만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전지, 물감, 면손수건, 수저, 색연필, 도화지, 필기도구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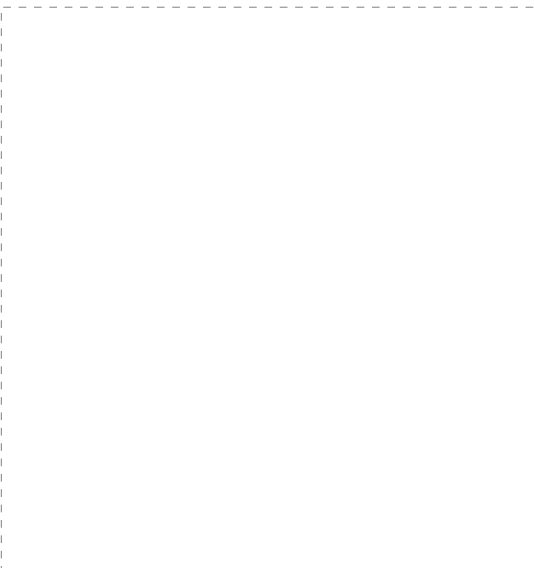
입하가 되니 작은숲속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번째 작은 숲속 한쪽에서
나무를 태워 만들어진 숲 조각을 주워 오는 것이예요.



숫으로 나뭇 가지와 줄기를 그리고,
다같이 흙을 종이 위에 올리고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겨울나무가 되었어요.
잎을 다 떨구고
가지만 앙상한 겨울나무...



겨울 나무에 연두색, 초록색 물감을 손으로 찍어서
나뭇가지 여기 저기에 찍었더니... 봄나무에서 그새 무성한
여름나무가 되었어요.



짜잔~~!
이렇게 완성된
꽃핀 초여름 나무입니다.
(모듬교사 희정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6) 봄학기 여섯 번째 만남

(가) 주제 : 소만, 감자꽃이 필 때쯤 우리는 맛있는 감자를 먹을까?

(나) 일시 : 2004년 5월 15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돗자리, 모둠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15분	마을학교로 이동	작은숲속에서 마을학교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시 15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감자 씻고 껍질 벗겨 불에 올리기 2. 감자인형 만들기 3. 맛있게 감자 먹기	아름다운마을학교	감자, 부르스타, 냄비, 소금, 수저, 우유팩, 가위, 색종이, 스카치테이프, 네임펜, 색연필, 풀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나비 모듬은 재호..예빈이..권진이..그리고 도을인데요.. 오늘은 도을이가 함께 하지 못해 우리 셋이.. 은영쌤 까지 넷이 모였답니다.. 오늘은 주말학교 벼리활동으로 감자 이야기도하고 감자도 찌먹는 날이에요..

우리 모듬은.. 먼저 감자꽃 사진을 봤어요.. 감자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다니.. 고구마처럼 생긴 자주감자도 보구.. 자주 감자꽃 이랑 흰 감자꽃 도 봤어요.. 감자꽃 사진 뒷장에는 감자를 그려 넣었지요.. 울통불통 동그라미를 그리구.. 펜을 꺾꺾 눌러주니깐 진짜 감자 같아요..

감자꽃노래를 들으면서 직접 감자를 깎았지요.. 나두 할 수 있어요.. 칼로 하는게 아니라 위험하지 않아요.. 수저머리를 꼭 쥐고.. 쓱쓱.. 문지르니깐..껍질이 잘 베껴져요. "너무 어려워요" 한 친구도 있었지만.. "감자 하나씩은 깎아야 감자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부지런히 자기 감자를 깎았어요. 조금 있다가..또 킁킁거리기도 했는데.. 그럴 땐 서로 도와가면서 깎았지요..

감자를 물에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었어요.. 감자가 몸을 충분히 담글 수 을 정도로 냄비에 물을 넣고 손가락으로 소금을 찍어 감자 위에 툭툭 뿌려주었어요. 소금이 어떤 맛인지..손톱에 살짝 찍어 먹어보기도 했어요..

"아 짜!"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얌^^ 맛있다..또 먹을래요"하더니 소금질했어요.

감자가 익는동안 ..우유팩을 가위질해서 감자인형만들기를 했어요.. 색골판지를 말아 감자 혀를 만들었어요.. 감자입에서 혀가 넌름 나왔다가 속 들어가지요.. 재호는 감자인형 혀를 속 내려트리고 얼마나 혀가 긴지 보여주는 걸 재밌어 했구요.. 예빈이는 말린 혀가 위로 속 올라가는 감자인형이 좋았나봐요.. 권진이는 감자인형표정 흉내내기 하구 있는 것 같지요..?ㅋㅋ

우리 6살 나비모듬은 높이 멀리 날개짓하는 나비처럼..감자인형도 훨훨 날았으면 좋겠나봐요.. 자꾸 잡아먹겠다고 날라다녀요..콩~~

맛있게 익은 감자 ..호호 불며 한개 반씩 먹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포크에 꽂아 입속에 홀렁 넣을려고 하면 감자가 포르르 떨어져 부서졌어요. 부서진 감자 조각도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소금을 뿌려주었더니 입에 착착!! 호호 불며 먹는 감자..감자노래..감자인형..감자꽃
모두이 서로 섞여 머리당기 손당기 놀이도 했어요..

언니 오빠 형 동생 팔짝팔짝 뛰며 놀았어요.

(모듬교사 은영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7) 봄학기 일곱 번째 만남

(가) 주제 : 여름철새가 찾아온다는 망종, 우리는 여름철새 목걸이를 만들자.

(나) 일시 : 2004년 5월 29일 토요일

(㉔)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돗자리, 모둠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이나 계곡	수박, 건빵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물새피리를 붙여 여름철새 찾아보기 2. 철새가 담긴 나무목걸이 만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나무, 목걸이끈, 사포, 네임펜, 여름철새 그림책, 도감, 물새피리, 물, 물수건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㉕) 활동 후기

오늘도 어김 없이 작은 숲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졌지요! 재우, 의진, 해인, 한백... 민서는 오늘 누나 유치원가 있어서 못왔지요~~~

작은 숲속에 나무와 풀들이 무성해서 우리 친구들이 뛰어 놀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 안해도 되겠다구요~~ 빨강계 익은 뱀딸기를 관찰하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물 새피리를 붙여 보며 새들을 모으는 피린데 정말 신기했어요! 입에 물을 넣고 꼬리에있는 구멍으로 붙면 예쁜 새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 개구리 모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잘 붙여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답니다.

우리는 올챙이와 개구리가 얼마나 자랐나? 보러 개울가에 가보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한백이가 꼬꼬닭 있어(?) 하며 우리를 안내했어요~~ 닭이 몇마리인지 세어 보고 우리는 또 개울가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 회정선생님이 재미있는 풀도 가르쳐 주며 우리 친구들 옷에도 붙여보았지요!!

또 가다가 한백이가 어! 이거봐? 벌레야? 벌레.. 근데 미령선생님은 아니야! 나무가지야? 그순간 회정쌤~~ 맞아요! 벌레 자벌레예요! 하는 것이다?!?! (순간 미령쌤 당황!!) 아~~~ 벌레가 맞네... 와! 한백이 대단하다. 한백이가 공동육아를 통해 숲에서 살더니 관찰력이 풍부해진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 운동기구 앞에서 한번씩 허리 돌리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라 가 보기도 하고... 한번씩 운동 기구에 올라간 다음 드디어 개울가에 도착했어요!!

비온 뒤라 물이 아주 많았어요! 물소리 들으며... 손도 담가 보고... 물새 피리도 붙어보고... 열심히 개울가에서 놀다가 내려가서 간식먹고 목걸이 만들기 하자고 하니... 우리 친구들 조금더 놀고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수박과 건빵 생각에 빨리 일어 나더라구요!! 일어나는 순간 의진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의진~ 울지도 않고 잘 일어나네!!

열심히 내려와 수박과 건빵을 먹고 나무 목걸이를 만들기에 들어갔지요. 그전에 새들의 관한 책을 보고 친구들에게 어떤새를 그릴지 책을 보며 생각 하자니, 책을 한장 한장 넘길 때 마다 " 나 이거, 아니야 이

거~ 이거~~ 난 이거~~" 하며 열심히 그리려는 마음들을 보이더라고요.

목걸이를 만들려면 사포로 우리가 그림그릴 면을 부드럽게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 주어야 했지요!! 저도 처음하는 거라 잘 안되더라고요! 계속 문지르다가 희정샘에게 검사를 받으며 했지요!!

드디어 친구들이 좋아 하는 새를 그릴 차례예요!! 네임펜으로 다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줄을 달아 목에 하나씩 목걸이를 걸고는 아주 흐뭇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일곱번째의 만남을 갖고... 비록 이 주에 한번이지만 친구들의 관계가 좀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을 잘 하지 않던 해인아와 재우도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구요. 의진 한백은 처음에 모일때 조금 낯설어 하지만 언니들과 누나들의 틈에서 사랑을 독차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모듬 친구들~~ 잘 지내고 6월 12일에 만나자.

그때는 민서도 꼭 만나자. 안~~녕!!

(모듬교사 미령님이 카페 게시판에 남겨 주신 글입니다.)



(8) 봄학기 여덟 번째 만남

(가) 주제 : 낮과 밤 길이가 같아진다는 하지, 우리는 풀피리 불며 돼지씨름 한판!

(나) 일시 : 2004년 6월 12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돛자리, 모듬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이나 계곡	쭈개떡, 쭈절편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풀피리 만들어서 불기 2. 천체현상과 관련된 수수께끼로 놀이하기 3. 돼지씨름 한판	작은숲속이나 계곡	풀잎, 수수께끼 카드, 돛자리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가만히 있어도 끈적한 땀이 흐르는 초여름 날이에요. 이번에도 한빈이가 제일 먼저 와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렸지요. 마을학교 선생님들보다도 풀피리를 멋지게 불어낸 한빈이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학종이를 꺼냈어요.

예쁜 학이라도 접을 셈일까요? 왓~~~ 한빈이는 "학종이 뒤집기"를 제안했어요. 학종이를 쌓아놓고 손바닥으로 "퍽!" 쳐서 뒤집어지는 종이는 다 내꺼~! 우와 ~ 우리 한빈이는 살짝만 쳐도 막 뒤집어 지네요. 그런데 지혜샘은 아무리 세계 바람을 일으켜도 그/대/로...-.;-; 한빈이가 멋진 기술로 학종이를 뒤집고 있을 때... 주원이가 아빠와 다정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언제봐도 씩씩한 주원이~~~^.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을 기다리며 수수께끼 놀이를 했어요. 수수께끼 문제가 적힌 종이를 나눠 갖고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데... 한빈이 형이 수수께끼 박사처럼 쉽게 문제를 알아맞추니, 주원이는 아무래도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주원이가 직접 지어낸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는 너무 어려워 아무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원이만 알고 있는 "책 제목"이었거든요. ^^

한참을 수수께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마침 주영이가 쓰윽~ 등장했지요. 주영이도 수수께끼를 무척 재미있어 했어요. 이대로라면 하루종일 수수께끼만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맛난 절편 간식을 먹기 전에 풀피리를 힘껏 불어 보았어요. 한빈이는 선생님 보다도 능숙한 솜씨로 "피익 피익~" 잘도 부는데 동생들은 조금 어려운데 봐요. 힘껏 불어도 아기 새들이 "뿌지직~" 설사하는 소리만 간신히 나네요. ㅋㅋ 자~ 간식 먹고 줄음이 밀려올 때... 지혜샘이 돼지씨름을 제안했어요.

"뒤집어라 얹어라" 로 편을 가르고 ... 치열한 한판..."응차~ 응차~~~" 엉덩이가 뜨거워지도록 안간 힘을 써 보지만 상대는 넘어갈 듯 말 듯... 막상막하의 경기지만... 그래도 승패는 갈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공룡모듬 동생들이 함께 하자고 놀러왔어요. 반가워! 자... 동생들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것! 절대로 "봐주기"는 없다... 진혁이와 주원의의 진검승부! 그런데 넘어뜨릴 생각을 안하고 온 힘을 발가락에 모았으니 돼지씨름이 아니라 "발가락씨름"이 되었는데... 너무 열심히 씨름해서 상대가 잘 넘어지지 않으니 속상한 맘에 눈물 짝~ 하기도 했지만, 엉키고 설키고 서로 치고 부대고 하면서 정이 속속 드는 한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희정샘이 예쁘게 만든 화관을 쓰고 제각각 멋진 한컷~!

의젓한 한빈이... 주원이 활짝~! 근엄한 주영이^^ 지혜샘도 한 컷~!!

헤어지기 전에 주원이랑 지혜샘이랑 술래잡기를 했는데... 지혜샘이 술래였지요.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열아홉, 스물 자 주원아~ 이제 찾는다." 했더니만, 저 뒤 덩불에 숨은 주원이 "네~~~" 하고 친철히 자기 위치를 가르쳐주지 뭐예요. ㅋㅋㅋ 멋지게 한판... 신나게 논 하루였어요. 제대로 놀고 나니 피곤한 기력도 싸악~ 회복되는 것 같았지요. 함께 하지 못한 해동, 창원이도 다음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

(모듬교사 지혜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9) 봄학기 아홉 번째 만남

(가) 주제 : 여름 더위를 이길 단오 부채 만들자.

(내) 일시 : 2004년 6월 26일 토요일

(대)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돛자리, 모듬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이나 계곡	미숫가루 얼음보숭이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대) 활동 후기

후덥지근한 날씨. 마을학교에 모인 선생님들 모두 한마디씩 하시네요. "어휴~~ 덥다!!"

비가 내릴 것도 같고... 작은숲속에 있는데 비가 오면 어찌지?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며 작은숲속으로 향했
지요.

와~~ 작은숲속에 앉아 있으니 정말 시원!! 시간이 지나니 좀 썰렁한 것도 같아요. 작은숲속은 나무가 에어
권인가?!

오늘도 역시 꽃마리의 부지런이 "환희"가 일등으로 왔어요. 환희는 오늘 오전에 창덕궁에 다녀왔네요. 창
덕궁 안내도를 가지고 저에게 이곳저곳 설명해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단짝 혜정리와 유
진이가 도착했어요.

"잘 지냈지?" 들은 역시나 환한 얼굴^^

오늘은 함께 "별하나 따다가"를 했지요. 코를 막고 몇개까지 딸 수 있나?!

환희는 처음에는 잘 안되더니 자꾸하니 별네개까지.

혜정리는 하기 싫다고 하더니 단짝 유진이가 따라 열심히^^ 유진이도 코를 막고 열심히~~~

별 하나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메고 짜고

별 둘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메고 짜고

별 셋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메고 짜고

다음 주말학교 때 만나면 실력이 다들 많이 늘었겠지?

그리고 이어진 돼지씨름!! 옆 모듬의 창원이까지 놀러와 대결을 한 결과! 유진이가 돼지씨름의 왕!!

환희와 저는 유진이의 기세에 놀리고 말았단니까요.

그리고 "계"싸움도 해봤어요. 엉덩이를 들고 옆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엉덩이로 쳐서 쓰러뜨리는 건데 이것
도 유진이가 힘 세~~더군요^^

열기를 식히며 미숫가루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어요. 혜정리는 좀 맛이 없다고.. 유진이와 환희는 2개

썩이나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난 후 단오부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단오부채를 만들어 선물하곤 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선물할까? 우리는 한지를 가지고 부채를 예쁘게 꾸미기로 했어요.
 꽃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잎도 만들어 꾸미고 있는 중! 잘 안되는 건 서로서로 돕기도 했지요.
 짜잔~~~ 완! 성!
 우리가 만든 부채 정말 예쁘죠? 올 여름 더위 물!뼉!겨!라!
 애들아~~ 시원하게 보내다 봄학기 마지막 주말학교에서 만나자^^

(모듬교사 은 영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가) 주제 : 과일빙수 먹으며 소서 더위 식혀 보자.

(나) 일시 : 2004년 7월 10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마을학교로 이동	숲속에서 학교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과일빙수 만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얼음, 빙수기, 양푼, 수저, 과일, 아이스크림, 우유, 미숫가루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여름계절학교에서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벌써 봄 학기 주말학교 갈무리하는 날이네요 오늘은 주말학교 쌤들도 모뎀 가방, 돗자리 없이 가벼운 마음.. 가벼운 손으로 작은숲속을 올랐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였어요

나무등걸 위에 차분히 앉아 이야기두 나누고.. 쌀보리놀이, 손가락찍기 놀이도 했어요 그러다가도 한친구가 노래기 지렁이를 발견하면 모두가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 그곳으로 모여들었죠

가볍게 산책도 하고.. 나무타기도 해봤어요 처음에 나무를 어떻게 타요..?하며 으아해하고 조금 겁내하던 친구들

뒤에서 엉덩이를 쑥 밀어주니 재미가 붙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번 쑥 밀어주니..엉덩이를 뺐다 붙였다 하며 애벌레처럼 잘도 타요 또 어떤 친구는 엉덩이가 어찌나 무거운지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ㅋㅋ 나무타기는 했는데..어떻게 내려와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 어...어..하며 얼굴이 얼어버린 친구 한번 시도해 보더니..더이상 엄두가 안나는지 저만치 떨어져 쉬고있는 친구 나무줄기에 스멀스멀 기는 벌레들이 많아 징그러워 못올라가겠다는 친구 ...

마을학교로 돌아와 과일빙수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저마다 가져온 과일을 꺼내 함께 나누었어요 니꺼내꺼 없이 한접시에 모은 과일을 깹깹깹 썰고 ..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수박속을 파서 빙수그릇에 담았어요 수박속을 자꾸 파니깐 수박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친구들은 "우와 물이 진짜 많다"며 신기해 했어요

"수박은 물이 많은 과일이네~"

모뎀별로 하나씩 빙수기를 받아 한사람씩 얼음을 넣고 빙수기를 돌려봤어요 주방창문으로 얼음을 배달해 주시는 영미선생님한테 얼음을 받아서 빙수기 통에 쏟아붓고 뚜껑 위로 빨처럼 솟은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려요

그릇에 수북히 쌓여가는 얼음을 보며 "우와 우와 쌓인다 쌓여~!!" 각얼음이 이렇게 가루처럼 녹아나오는 게 신기해요

그릇에 얼음을 담구 우유를 부었어요 희정쌤이 미숫가루도 부어주셨어요 먹구 싶은걸 꼭 참으며 끊어냈던 수박을 담고 네모로 썰은 자두 복숭아도 담았어요 초코 딸기 바닐라맛 아이스크림도 빼놓지 않았지요 어떻게 된거지..? 이렇게 멋진 과일빙수를 만드는동안 얼음이 다 녹아 물이 되버렸네요
환희는 끝까지 먹는 편이 아닌데.. 그날따라 웬일인지..손가락을 쉽게 놓질 않더라고요..꼭꼭하게 먹는 환희~~

과일빙수를 먹구 정리하며 용기종기 모인친구들 어느새 다리찢기..물구나무서기.. 아취자세 쟁기자세등 자연스럽게 몸놀이에 빠져들었어요 몸놀이로 한참 재미를 붙이중에 오신 엄마 아빠 ..아쉽게 하나둘씩 친구들과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재미있게 자기몸을 수련하는 아이들.. 한살두살 나이를 먹는것이 자기몸과 단절하는 시간이 아닌 자기 몸 에 대한 앎이 깊어지고 애정이 커지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길 또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그런 아이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마을에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거나 붙잡아 주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어울려 나무타기하며 꿈을 키워갔지요. 우리아이들도 나무를 타며 하늘을 상상하고 땅의 현실을 읽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한학기 함께 한 작은숲속 처음에 만날땐 분간하기 어려운 키로 모양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어느새 한번 만나고 두번나고 만남이 반복될수록 감추었던 빛과 색을 띄며 자라있네요 처음엔 혼자인것처럼 작은떡잎 하나가 나오더니 지금은 함께 무리지어 숲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도 어느새 작은숲속의 흐름과 순환을 담아있나봐요

처음 만남의 낯설음에서 시작했는데...조금씩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안온친구가 있으면 서운하고 궁금하고.. 헤어질때 아쉽구.. 다음에 또 만나길 소망해보지요

오늘 일찍 마을학교로 온 예빈이랑 작은숲속을 향해 같이 걸었어요 막 잠을 자고 일어난 뒤라 힘없이 걷던 예빈이랑 작은숲속 가는길목에 있는 권진이네 집 배란다 창쪽을 향해 "권진아!!" 크게 불렀어요 어느새 신나는 표정으로 권진이네 얼굴을 내밀었어요.. 거기가 권진이네 집인줄 몰랐던 예빈이 는 조금 놀랐는지 금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배우는 곳..내가 길을 걷는곳 어디서나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친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학교 우리가 꿈꾸는 마을이겠죠..? ^^

(모듬교사 은영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마) 봄 학기 모듈별 참여 아동(총 27명)과 모듬 교사(7명)

(!) 4~5세 친구들 : 의진, 한백, 해인, 민서, 재우, 용하 : 류미령쌤, 신은영쌤

- (2) 6세 친구들: 권진, 도을, 예빈, 재호 : 김은영샘
- (3) 7세 친구들: 해민, 하진, 진혁, 재윤 : 신명심샘
- (4) 초등친구들: 주원, 해동, 한빈, 주영 : 김지혜샘
- (5) 초등친구들: 환희, 여진, 현서, 유진, 혜정: 이보영샘
- (6) 초등친구들: 준서, 준우, 천호, 창원 : 강재관샘

바) 가을학기 운영 내용

(1) 가을학기 첫 번째 만남

(가) 주제 : 찬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에 포도 먹고 그림 그리고...

(나) 일시 : 2004년 9월 4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마을학교에서 만나요!	마을학교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자기 소개하는 이름표 만들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색지, 가위, 색연필, 싸인펜, 이름표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아름다운마을학교	포도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포도껍질로 그림 그리기 2. 대동놀이 한판!	아름다운마을학교	전지, 포도껍질, 붓, 믹서기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가을학기 첫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과 새로운 학기를 보낼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어요. 벌써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지요. 지난 학기때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모듬은 현서, 주연이, 불이 이렇게 세 친구가 함께 했답니다. 이번에는 오지 못했지만 주영, 해동이도 우리 모듬이에요...

그럼 잠깐 새 친구를 소개할까요?

주연이는 7살 자연이의 언니구요 멀리 일산에서 왔대요. 긴 생머리와 깜찍하고 동그란 눈이 토끼같은 친구예요. 주연이는 1학년인데 벌써 학교에서 멋진 커플친구가 있다는군요 ^^ 커플반지도 있대요 호호호 불이는 현서의 친구로 2학년이고.. 부리부리한 두 눈이 무척 인상적인 친구예요. 그리고 이름도 참 특이하지요. '불이야~'라는 재미난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또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하구요... (그날도 책을 손에서 떼지 못하던걸요^^)

우리는 이름표를 만들면서 자기소개 10문 10답을 했어요. 뻔한 질문부터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까

지...^^ 한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름표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현서는 한 100개는 만든 것 같아요^^: 완벽한 걸 좋아하는 현서...!

이름표를 만들면서 모두 이름을 지었는데, 깍두기와 꿈동산이 후보로 추천되었어요. 깍두기도 재밌는 이름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꿈을 마을학교에서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꿈동산'으로 결정했지요. 그런데 자꾸 지혜샘이 '꿈동산'을 '꽃동산'으로 불러서 헷갈렸어요.-.-; 건망증이 심한 지혜샘...

이제 간식 먹을 시간~~~~ 우왕~ 포/도/다! 원래는 껍질을 쪽! 쪽! 빨아먹어야 맛있지만... 포도껍질 그림 그리기를 위해 포도 알맹이만 살짝 빼먹었어요. 아~~~! 맛있는 포도는 금세 자취를 감추고... 자! 그럼 이제 예술활동을 해 봅시다. 한 그릇 가득 모아놓은 껍질로 내 마음을 표현해 보자구요... 포도껍질로 짓이겨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삼베천에 포도물을 짜서 붓으로 색칠하기도 하고... 완성된 그림입니다. 앗!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 복잡...미묘...알쏭...달쏭하군요!

그림을 그리면서 주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여기 오기전에 자연이(동생)한테 마을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요... 여기 정말 재밌어요..."

주연이의 힘주는 한 마디에 힘이 마구 마구 솟았지요.

"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즐겁게 마무리 놀이를 하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답니다.

현서, 주연, 불이야~~~ 우리 다음주에 만나자.

그리고... 해동이와 주영이도 다음주에는 함/께/해/요^^

(모듬교사 지혜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2) 가을학기 두 번째 만남

(가) 주제 : 추분, 도토리 나뭇잎 모자 쓰고 밤 줍기

(나) 일시 : 2004년 9월 18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	고구마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나뭇잎으로 고깔 모자, 월계관 만들기 2. 밤, 도토리 줍기 3. 도토리 인형 만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참나무나 밤나무 잎, 네임펜, 스카치 테이프, 가위 등
5시 20분 - 5시 30분	스물 한밤 자고 만나자	작은숲속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아침부터 오락가락하던 비. 오늘은 작은숲속에서 여는 첫번째 가을주말학교인데 이를 어찌지? 다행히도 비구름이 비켜간 사이에 작은숲속에서 만났지요.
뚝자리를 깔고 먼저 온 한백이 중현이와 대자로 누웠어요. '우와 편하다!!'
어느 잎이 가장 높이 있나 어느 잎이 가장 낮게 있나..
그러다 형들이 찾아 온 밤을 보곤 우리도 밤을 찾아 떠났지요. 도대체 밤은 어디에 있는거지? 모두 납작밤이네~~ 통통한 밤을 줍고 싶어~~
모두들 열심히! 제일 어린 동생 준영이도 엄마와 함께 열심히 찾았지요.
밤을 넉넉히 주울 순 없었지만 돌아오는 길 밤잎을 주워 머리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거야.
첫번째로 중현이 머리에 짤~~
고구마를 먹고 있는 중현이 머리 위의 멋진 왕관 보이시죠?
엄마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던 준영이도 얌전히 앉아 맛있게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리고 납작밤에 얼굴을 그려 밤인형 놀이도 하고 밤잎을 엮어 왕관 하나씩 만들어 머리에 썼지요.
우리 모두 마라톤 선수들 같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옆 모뎀 형 누나들도 놀러와 한참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끓여서~~'놀이도 했답니다.
아직은 이런 저런 요구도 많고 서로서로 어색할 때도 많이 있는 동생모뎀이지만
가을주말학교가 끝날때쯤엔 서로 마음 척척맞는 친구가 되겠지요?
얘들아~~ 21밤자고 만나자!!

(모뎀교사 은 영님께서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3) 가을학기 세 번째 만남

(가) 주제 :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 잠자리떼는 어떨까?

(나) 일시 : 2004년 7월 10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 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작은숲속	사과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잠자리 만들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나무젓가락, 색지, 싸인펜, 네임펜, 색종이, 스카치테이프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작은숲속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곤충모듬... 이 다시모였습니다. ^^ 음.. 이번주에는 민경이, 한빈이, 석빈이가 함께 했네요.

준우와 준서는 함께하지 못했어요. ㅠ ㅠ

우리 모듬은 계곡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곤충을 정하고

이름표에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민경이는 나비, 석빈이는 장수풍뎅이,

한빈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곤이 이름을 붙이자면 '파리벌나방잠자리'를 그렸어요.

아.. 저는 개똥벌레를 그렸답니다. ^^

그렇게 이름표에 그림을 그리고 계곡으로 출발했죠. 와우... 아직 물이 그렇게 차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서로 양말을 벗고 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미끄럽다!! 조심해!!!"

와우.. 춥다 애들아. 조심해서 걷자구!! 석빈이와 민경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

계곡엘 다녀와서 간식으로 준비한 사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사과는 버리지 않고 땅에 심기로 했어요. 혹시 아나요?? 커다란 사과나무가

작은 숲속에 자라게 될지... ^^ 그나저나 우적우적 참 맛있게들 먹고있는 모습입니다.

사과를 다 먹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리고 붙이고

꾸미는 가운데 어느 덧 가을 잠자리가 완성되어 갔지요.

고추잠자리, 빗살무늬잠자리, 파란 잠자리... 다양한 잠자리가 만들어졌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꼬리를 잡고 펄럭 펄럭 흔들어보기도 하고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잘 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 그래도 대만족입니다.

활동을 접고 헤어지는 시간, 한빈이와 석빈이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학기 때 만들어 설치해 놓은 새집을 보기 위해서죠.

아직 튼실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새집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나무를 오르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몸도 키도 커서 나무를 더 잘 탈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모듬교사 재관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4) 가을학기 네 번째 만남

(가) 주제 : 서리가 내린다는데 우리는 낙엽을 모아 마을학교 나무를 만들자.

(나) 일시 : 2004년 10월 23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나뭇잎 탁본하기	작은숲속과 계곡	뾰족자리, 모둠별 준비상자,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마을학교로 이동	숲속에서 학교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마을학교 나무 만들기 2. 마을학교 이사 축하 잔치하기	작은숲속이나 계곡	전지 여러장, 큰 나무 그림, 풀, 테이프, 색연필, 크레파스, 떡과 과일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새로 이사한 마을학교에서의 선생님들과 첫 만남을 가진 후 작은 숲속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있던 마을학교에서 가는 것 보다 훨씬 빨리 숲속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오늘은 마을학교 집들이겸 주말학교 어머님들을 초대할 날이기도 하지요!!

숲속에 도착하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있었어요. 북한산의 산공기가 작은 숲속까지 전해오네요. 조금 쌀쌀했어요!

오늘은 새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음~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소미~~~ 다음달 부터 공동육아에 함께 할 인우~~ 두 친구들이 오늘 주말 학교에 처음 참여했어요! 소미는 공동육아 때 만났었다고 별로 낯설어 하지 않더라고요! 인우도 엄마와 마을학교에 한번 와서 만나서 그런지 처음에만 조금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 하곤 금방 아이들과 말도 잘하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앞으로 주말학교와 공동육아에서 잘 만나길 바라요!

오늘은 완전한 가을을 느끼며 숲에서 짧게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숲속을 다니며 노랑, 빨강, 갈색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을 주워 나뭇잎 탁본을 하는 날이에요~~ 공룡모듬 친구들과 함께 희정샘이 먼저 우리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대로 희정샘을 따라 해봤어요! 처음에는 잘 안되서 힘들기도 했지만 한장 한장 하다보니 우리 친구들 손에 힘도 생기고 자신감을 갖더니 오히려 자랑하며 하더라고요!

마을학교에 도착하니 맛있는 떡과 굴이 준비되었더군요! 역시 먹는 것이 앞에 있으면 즐거운 법!! 그런데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즐거운 것 같죠!! "잉~~ 사진으로 들키고 말았네!"

맛있는 시루떡과 절편으로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 옆에서는 희정샘과 엄마들도 떡을 드시며 담소를 나누셨어요!

나뭇잎 탁본한 것은... 마을학교에 오니 엄청~ 왕따시~ 큰 나무가 쓸쓸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말학교 친구들과 함께 멋진 나무에 옷을 얹혀 주었어요!! 언니 오빠, 형과 누나들은 아주 멋지게 글도 쓰고 색

칠도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준우는 내년에 주말학교에 참여 하지 못한다고 나뭇잎에 유언장 까지 쓰더라고요! ㅋㅋㅋ

새로 이사한 마을학교에서의 첫 주말학교... 방이 많아서 좋고... 마당이 있어서 좋고... 작은 숲속이 가까워서 좋고... 이웃이 있어서 좋은 아름다운 마을학교 ^0^

11월에 만나자!! 공통모둠 친구들~~ 감기 조심하구 잘지내!!

(모듬교사 미령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5) 가을학기 다섯 번째 만남

(가) 주제 : 입동, 겨울잠 자는 친구들!!!

(나) 일시 : 2004년 11월 6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마을학교로 이동 간식	숲속에서 학교로 마을학교	안전한 보행권 확보! 감귤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겨울잠 자는 동물 이야기 2. 겨울잠 자는 친구들 만나보기	아름다운마을학교	책, 그림, 전지, 크레파스, 색연필, 색종이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11월입니다. 지난 모임때 해가 지자마자 갑자기 추워졌던 기억이 생생해서 큰 맘먹고 오리털 잠바를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날이..... 안 춥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춥지 않아야 즐겁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작은 숲속에 하나 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숨바꼭질 놀이를 했지요. 여기저기 작은 몸 숨길 곳을 찾는 친구들의 발걸음이 재빨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은 친구들을 찾는 술래의 눈 움직임도 빨랐지요.

신나게 한판 뛰어놓고 나무기둥에 앉아 한 숨 고르다가 찬찬찬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놀이를 해서 진 사람은 손목을 맞기로 했는데 주연이가 손가락으로 때리는게 성에 안 찼는지 있는 힘껏 주먹으로 내리치는 바람에 지혜샘의 손목이 별장게 부어올랐지요. 흑흑... 알고보면 우리 주연이는 엄청 터푸~한 친구라니까요 ^^;

작은 숲속을 지나 계속이 있는 팔각정까지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약수터 근처에는 운동기구들이 많았는데... 산에 자주 오르는 불이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는 모습이 참 건강해 보였지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윗몸일으키기도 해보고... 약수터 아래쪽엔 수유타구회 회원들이 열심히 탁구치는 모습도 보였지요. 아저씨들이 탁구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중에 한 아저씨가 갑자기... 그냥 멀뚱하니 보지 말고 응원도하고 박수도 치라고 하시는 바람에 주연이는 조금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이는 '와~~~'하면서 박수를 쳤다는군요... ^^

가벼운 운동을 끝내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비밀 숲속으로 내려왔는데 다 와서 보니 가방을 약수터에 두고 왔지 뭐니까? 예구구구... 비밀 숲속에선 다른 친구들이 엄청 재밌게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수터까지 다시 올라갔지요. 헉헉~~

해가 기우니 날이 금방 쌀쌀해졌습니다.

'랄랄라 한 잎... 랄랄라 두 잎... 랄랄라 세 잎...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네잎클로버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마을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까먹는 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걸 새삼 느꼈지요. 한창 꿀을 먹고 있는데 불이가 자랑을 합니다. 꿀을 공중에 던져 먹을 수 있다고... 우리도 질 수 없지요. 순간 꿈동산 모둠원들은 꿀을 공중부양시켜 입속으로 골인시키는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골인 골인~~~ 어떤 것은 활짝벌린 입을 외면한채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인증을 받아 바닥에 튕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허에 닿았다가 튕겨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입속으로 골인시켜 결국엔 100%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백.발.백.중'이라 하지요 ㅋㅋㅋ ^^v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사진과 그림자료를 보면서 겨울잠 자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땅 속에 웅크리고 겨울잠자는 동물들... 그런데 주연이가 그린 곰, 박쥐, 고슴도치들은 속눈썹 수북한 큰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었지요. 아직 겨울잠을 잘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 불이는 주연이가 그린 동물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곰탱이(곰), 개굴탱이(개구리), 달탱이(다람쥐)..박탱이(박쥐), 뱀탱이(뱀)...

이제 다가올 추운 겨울동안 우리 동물 친구들이 편한 겨울잠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림을 마무리를 하고.. 영차영차... 마을학교 최고의 이벤트... 돼지씨름을 했습니다. 영차영차... 때로 물려오는 아기 돼지들의 공격으로 지혜돼지는 옆으로 뒹구르르.. 앞으로 뒹구르르... 예구구구....

이번 모임에는 현서와 유진이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현서, 유진... 우리 다음에는 꼭 만나자~!

그리고 불이, 주연도 2주동안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

(모듬교사 지혜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6) 가을학기 여섯 번째 만남

(가) 주제 : 소설엔 눈이 내린다는데 우리는 신나게 놀고 모과차 만들자.

(나) 일시 :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마을학교로 이동 간식	숲속에서 학교로 마을학교	안전한 보행권 확보! 단감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모과차 만들기	아름다운마을학교	모과, 흑설탕, 유리병, 채칼, 도마, 수저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태) 활동 후기

작은 숲속에 모여드는 공룡모듬 친구들... 공동육아에서 매일 만나는 사이들이다 보니... 오늘은 언니 오빠들보다 작은 숲속을 뛰어 다니며... 서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중현이 일산에서 오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걱정을 했지요? 무슨일이 있나? 연락도 없었는데...

공룡모듬 친구들과 다른 모듬언니 오빠들과 함께.. 비밀 숲속에 갔어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은... 저번에 재미있게 놀던 곳... 다리 건너며 가위 바위 보 했던 곳으로 출동!!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재미있게 놀길래 우린 다른 곳으로... 더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 나섰지요!

외나무 다리에서 기차타기... 낙엽침대에 누워 하늘을 보는데... 글썽 한백이가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기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아이들에게는 신비스럽고 감정이 풍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지요!

마을학교에 돌아온 친구들 손을 씻고... 맛있는 감을 먹으며 감속에 있는 씨도 관찰하고... 감씨를 반으로 잘린 것 속에 아기 손가락도 관찰하고...

오늘은 모과차를 만드는 날이에요! 아이들만 모과차를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처음으로 만드는 모과차래요!! 딱딱한 모과를 반으로 자르니... 어! 까만 씨가 있네!! "와! 신기하다" 너무 딱딱해서 칼로 자르기 힘든 모과...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채칼... 친구들은 한번씩만 해보고... 병에 넣는 것에 집중해서 하기로 했지요!! 먼저 자른 모과를 바닥에 깔고... 위에 설탕을 뿌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 모과차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선생님들 생각!)

다~~ 만든 모과차 다음 주말학교때 맛 볼 수 있겠죠!!! 오늘 못 만난 중현아!! 다음 주말학교에 와서 모과차 같이 먹자!! 꼭! 와~~~ 공룡모듬 친구들 안녕!!!

(모듬교사 미령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7) 가을학기 일곱 번째 만남

(가) 주제 : 큰 눈이 내린다는데 비만 오네, 우리는 방에서 놀거야!

(나) 일시 : 2004년 12월 4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마을학교에서 만나요!	아름다운마을학교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윷놀이	아름다운마을학교	윷, 말판, 말 등
4시 - 4시 30분	간식	아름다운마을학교	모과차, 우리밀 건빵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친구 모습	아름다운마을학교	전지, 색연필, 크레파스 등
5시 20분 - 5시 30분	열 네밤 자고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어요. 가을주말학교 하는 날 중에서 처음으로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계획했던 신나는 놀이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어요. 대신 마을학교에서 길~게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눈은 안 오고 비만 오던 날, 주말학교 친구들의 놀이속으로 가 볼까요?

지혜샘이 윷놀이 게임과 팀을 나누워 주웠어요. 토끼모듬과 낙엽모듬이 모여서 한 모듬이 되었어요. 토끼모듬과 낙엽모듬은 비슷한 또래친구들이어서 서로 만나자마자 잘 어울렸어요.

두모듬 친구들이 모이니, 떠드는 것도 풍~성 놀이하는 것도 풍~성 장난치는 것도 풍~성 하네요

윷놀이 시간~

진혁이와 권진이, 해민이는 윷놀이의 달인이었어요. 직접 말도 놓고, 친구들에게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주문도 해요. 윷이나 모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소리 높여 응원도 하고... 이보다 더 열광적일 수 없다!!! 였어요. 하지만 한쪽편에 있는 친구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윷을 던지러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금방 나타나고...

그리고 간식시간~

지난 번에 만들었던 모과차와 건빵. 우리가 만든 모과차가 실패했으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성공이에요 성공!! 직접 만든 모과차의 향을 맡으며 모과차를 마시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우리가 만든 모과차의 맛은 당연히 달콤한 맛이었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모과를 넣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하나 가득~ 어떤 친구는 아주 조금~ 그리고 '친구 꾸미기'놀이를 했어요.

한 친구가 전지에 누으면 그 모습대로 따라 그린 후, 각자 나름대로 멋있게 꾸며 주는 것이었지요. 우리 모듬에서는 진혁이가 모델이 되었는데 자기 모습이 그려지자 쑥쓰러워 했답니다. 여러명이 꾸며주는 거라서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요. 서로 의논하면서 했더라면 더 멋지게 꾸며졌을까?

어쨌든 이렇게 완성!

정체모를 한 친구가 탄생했어요. 여러명의 친구들이 꾸몄다는 걸 한 눈에 알아 보겠지요? 답엔 여러명이서 꾸몄는데 한 명이 꾸민 것처럼 완성해 보아요~ 이번 주는 주말학교 가을학기 마지막으로 모이는 거 알죠? 멀리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제일 가깝게 함께 했던 유하와 자연이가 기억에 남네요. 마지막 가을학기에는 그동안 빠졌던 친구들도 모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만날 때까지 재미나게 지내다 만나요.

(모듬교사 명심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8) 가을학기 여덟 번째 만남

(가) 주제 : 동지팔죽 먹고, 황토 염색으로 겨울 추위를 날려보자.

(나) 일시 : 2004년 12월 18일 토요일

(다) 하루 일정

시간	활동내용	장소	준비물
3시 30분	작은숲속에서 만나요!	작은숲속	신나는 마음
3시 30분 - 4시	[몸풀기 맘풀기] 1. 선생님과 친구들 서로 서로 인사하기 2. 숲속과 계곡에서 신나게 뛰어 놀기	작은숲속과 계곡	마실물, 물수건 등
4시 - 4시 30분	마을학교로 이동	숲속에서 학교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4시 30분 - 5시 20분	[벼리활동] 1. 황토로 속옷 물들이기 2. 가을학기 마무리 동지팔죽 잔치	아름다운마을학교	황토, 소금, 큰 대야, 속옷, 팔죽, 동치미, 수저 등
5시 20분 - 5시 30분	겨울계절학교에서 만나자	아름다운마을학교	아쉬운 마음

(라) 활동 후기

가을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모두들 마을학교에 모여서 숲속 산책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년동안 우리가 놀았던 곳을 모두 둘러보았죠. 작은숲속, 육각정, 계곡, 비밀숲속 이렇게 우리 동네

엔 우리 놀이터가 참 많아요.

마을학교로 돌아와 몸을 녹인 후 부모님과 함께 황토 염색을 했어요. 황토를 물에 풀어서 소금을 넣고 우리가 준비해 온 속옷을 넣어 주물주물.... 열심히 주무른 후에 집에 가져가서 바싹 말렸다가 깨끗하게 헹구고 빨아서 입으면 겨울에도 춥지 않은 황토염색 속옷이 된대요.

다음 주에 동지래요.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에는 팔죽을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마을학교 어린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동지팔죽을 나누어 먹었어요. 꿀맛이었어요.

가을학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 되면 겨울학교로 만날거예요. 친구들 모두 안녕~!

(전체진행교사 살구나무님께서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사) 가을 학기 모둠별 참여 아동(총 33명)과 모듬 교사(7명)

- (1) 공룡 모듬 : 해인 의진 한백 새하 소미 준영 중현 인우 (3~5살)-미령 쌤 /은 영 쌤
- (2) 토끼 모듬 : 해민 진혁 자연 재운 재호 (6~7살)- 보영 쌤
- (3) 낙엽 모듬 : 권진 하진 유하 예빈 민희 석영(6~7살)- 명심 쌤
- (4) 도토리 모듬 : 환희 유진 도현 주원 혜정 (1~2학년)-은영 쌤
- (5) 꿈동산 모듬 : 불이 현서 해동 주영 주연(1~2학년)-지혜 쌤
- (6) 곤충 모듬 : 한빈 준서 준우 민경 석빈 (3~4학년)-재관 쌤

2) 아름다운 마을 계절학교

가) 목 적

2003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과 분산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주말학교를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계절학교의 형태로 정착시킨다. 주말학교와 지역공교육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장을 형성하는 장이 될 것이다.

나) 2004년 어린이 계절학교 학기 구성

- (1) 학기 구성의 방향 : 현재 제도권 학교 교육의 학기제를 적용한다.
- (2) 여름학교 : 2004년 7월 26일~2004년 8월 6일(월~금, 이른 9시 30분~늦은 4시 30분, 2박 3일 들살이)
- (3) 겨울학교 : 2005년 1월 24일~2005년 1월 28일(월~금, 이른 9시 30분~늦은 4시 30분, 2박 3일 들살이)

다) 여름계절학교

(1) 하루 일정

- 9시 30분 ~ 10시 30분 : 나들이와 놀이
- 10시 30분 ~ 12시 30분 : 활동 ①
- 12시 30분 ~ 13시 30분 : 점심 도시락
- 13시 30분 ~ 15시 30분 : 활동 ②
- 15시 30분 ~ 16시 30분 : 간식, 하루 마무리

(2) 주간 일정 : 월~금, 2주 과정 (2박3일 들살이 포함)

날짜	7/26	7/27	7/28	7/29	7/30
활동 내용	여는마당 양푼비빔밥 천연염색 백두대간 옷놀이	몸을 푸는 한마당 떡볶이 곤충집 만들기 어린이요가	여름곤충과 만나기 카레라이스 연극놀이 새집 만들기	여름새와 만나기 비빔국수와 떡 조물조물 흙놀이 과일빙수 만들기	북한산 나들이 김밥 도시락 한바탕 물놀이 쉬엄쉬엄
준비물	흰색 면티셔츠 입던 것, 도시락밥, 나물 반찬, 마실 물, 비닐주머니, 수저, 필기도구 등	모자, 도시락밥, 야채 한가지, 마실 물, 빈 유리병, 수저, 필기도구 등	도시락밥, 야채 한가지, 마실 물, 수저, 읽고 싶은 이야기책, 필기도구 등	과일, 야채, 마실 물, 수저, 필기도구, 읽고 싶은 이야기책, 포스터칼라, 붓 등	김밥 도시락, 마실물, 갈아 입을 옷, 수건, 물안경, 수저, 간식 등
날짜	8/2	8/3	8/4	8/5	8/6
활동 내용	작은숲속 비밀숲속 주먹밥/지렁이(5) 음식물 퇴비 수박화채	작은숲속 비밀지도 볶음밥/지렁이(6) 노래놀이 한마당 마무리 인사	여름	들살이	평창 국립청소년 수련원 허브빌리지
준비물	도시락밥, 마실 물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봉투, 수저, 필기도구 등	야채 한가지, 도시락밥, 마실 물, 수저, 읽고 싶은 이야기책, 필기도구 등	갈아 입을 옷, 수건, 물병, 수저, 필기도구, 물안경, 모자, 비옷, 튜브 등	들살이와 관련된 안내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장소 안내 http://www.herbillage.net/ 22평 통나무집 2동입니다.

(3) 활동 내용

(4) 여름 들살이 활동 내용

- 언 제 : 2004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 어디서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허브빌리지 통나무집

여는 날		펼치는 날		닫는 날	
???	집에서 출발!	???	일어나 씻기	???	일어나 씻기
9:00	모이기	9:00 ~ 10:00	아침과 휴식	9:00 ~ 10:00	아침과 휴식
9:30 ~ 12:30	출발과 도착	10:00 ~ 12:30	벼리활동④ “물놀이”	10:00 ~ 11:00	벼리활동⑧ “주먹밥”
12:30 ~ 14:00	점심과 휴식	12:30 ~ 14:00	점심과 휴식	11:00 ~ 11:30	정리와 마무리
14:30 ~ 15:30	벼리활동① “모듬끼리”	14:00 ~ 15:30	벼리활동⑤ “낮잠과 자유”	11:30 ~ 12:30	점심과 휴식
15:30 ~ 16:00	간식	15:30 ~ 16:00	간식	12:30 ~ 15:30	출발과 도착
16:00 ~ 18:00	벼리활동② “수련원 탐험”	16:00 ~ 18:00	벼리활동⑥ “몸풀기”	???	집으로
18:00 ~ 19:00	저녁과 휴식	18:00 ~ 19:00	저녁과 휴식		
19:00 ~ 20:00	정리하고 씻기	19:00 ~ 20:00	정리하고 씻기		
20:00 ~ @_@	벼리활동③ “밤 산책”	20:00 ~ @_@	벼리활동⑦ “견우와 직녀”		
???	잠자리에 들기	???	잠자리에 들기		

(5) 여름계절학교 활동 모습





(6) 여름계절학교 모듈별 참여 아동(총 28명) 및 모듈교사(7명)

① 은비 혜린 준서 준우 한빈 민경(3/4학년) - 강제관

- ② 도현 주원 환희 혜정 김유진 (1/2학년) - 김은영
- ③ 주영 혜동 혜화 곽유진 현서 (1/2학년) - 한희정/김지혜
- ④ 해민 진혁 자연 의진 해인 재운(4~7세) - 류미령
- ⑤ 하진 권진 예빈 유하 한백 재우 (4~7세) - 신명심/이보영

마) 겨울계절학교

(1) 하루 일정

- 9시 30분 ~ 10시 30분 : 나들이와 놀이
- 10시 30분 ~ 12시 30분 : 활동 ①
- 12시 30분 ~ 13시 30분 : 점심 도시락
- 13시 30분 ~ 15시 30분 : 활동 ②
- 15시 30분 ~ 16시 30분 : 간식, 하루 마무리

(2) 주간 일정 : 월~금, 1주 과정(2박3일 들살이 포함)

(3) 활동 내용

날짜	1/24	1/25	1/26	1/27	1/28
활동 내용	여는마당 떡볶이 몸을 푸는 한마당	겨울놀이한마당 카레라이스 숲속 나들이	겨울	들살이	산음자연휴양림
준비물	도시락밥, 마실 물 야채 한가지, 읽고 싶은 책, 수저, 펼기도구 등	야채 한가지, 도시락밥, 마실 물, 수저, 읽고 싶은 이야기책, 펼기도구 등	갈아입을 옷, 수건, 모자, 장갑, 펼기도구, 점심도시락 등	들살이와 관련된 안내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장소 안내 http://www.huyang.co.kr/ 황토방 2동입니다.

(4) 겨울들살이 활동 내용

- 언 제 : 2005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 어디서 : 산음자연휴양림

여는 날		펼치는 날		닫는 날	
???	집에서 출발!	???	일어나 씻기	???	일어나 씻기
9:00	모이기	9:00 ~ 10:00	아침과 휴식	9:00 ~ 10:00	아침과 휴식
9:30 ~ 12:30	출발과 도착	10:00 ~ 12:30	벼리활동④ “몸놀이”	10:00 ~ 11:00	벼리활동⑧ “주먹밥만들기”
12:30 ~ 14:00	점심과 휴식	12:30 ~ 14:00	점심과 휴식	11:00 ~ 11:30	정리와 마무리
14:30 ~ 15:30	벼리활동① “모듬끼리”	14:00 ~ 15:30	벼리활동⑤ “낮잠과 자유”	11:30 ~ 12:30	점심과 휴식
15:30 ~ 16:00	간식	15:30 ~ 16:00	간식	12:30 ~ 15:30	출발과 도착
16:00 ~ 18:00	벼리활동② “제1산책로 탐방”	16:00 ~ 18:00	벼리활동⑥ “제2산책로 탐방”	???	집으로
18:00 ~ 19:00	저녁과 휴식	18:00 ~ 19:00	저녁과 휴식		
19:00 ~ 20:00	정리하고 씻기	19:00 ~ 20:00	정리하고 씻기		
20:00 ~ @_@	벼리활동③ “밤 산책”	20:00 ~ @_@	벼리활동⑦ “실내놀이”		
???	잠자리에 들기	???	잠자리에 들기		

4) 아름다운 마을학교 교육사랑방

가) 목 적

2003년 4학기의 주말학교를 진행했던 경험은 아이들과의 질적인 만남에 대한 꿈과 소명을 새삼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이었다. 자연스런 아이들과의 만남과 함께 하는 부모와의 소통과 연대는 어떻게 밀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육사랑방을 기획하게 되었다. 지역의 학부모와 교사,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교육 문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배움의 장으로 출발하여 대안학교 설립의 토대를 느슨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나) 교육사랑방 운영 방식 및 내용

- (1) 주말학교의 봄·가을 학기, 계절학교의 여름·겨울 학기 시작과 맞물려서 연 6회 운영한다.
- (2)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강사를 초빙하는 공개 강좌 형식으로 운영한다.
- (3) 지역의 학부모, 주민, 공동육아와 주말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부모, 지역 교사, 예비 교사들이 열린 방식으로 참여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 (4) 지역의 교육문화 운동 단체와의 연대의 기반을 확보(전교조 성북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강성북지회, 동화 읽는어른모임 강북지회, 강북구어린이집 연합회 등)한다.

다) 세부 진행 일정

	일정	내용	강사	장소
1회	3월 6일	세시와 절기에 따른 자연생태의 변화	류창희 (자연생태연구소 소장)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2회	5월 22일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 교육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3회	7월 24일	옛아이들 노래와 놀이를 통한 환경 교육	김백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연구원)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4회	8월 28일	옛이야기 속의 환경교육	편해문 (옛아이들 노래와 놀이 연구소 소장)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5회	10월 30일	대안교육과 환경교육	현병호 (민들레 발행인)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6회	12월 18일	아이들과 함께 해 보는 천연염색	김성동 (쪽빛나라 대표)	북한산아카데미 아름다운마을학교

3. 프로그램 결과

- 가. 지역적 삶을 근거로 한 구체적 환경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 나.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세시와 절기의 흐름을 아이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 다. 세시와 절기가 도시적이고 현대적 삶에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우리가 새롭게 모색해야 할 현대적 계승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 라. 양적인 소통인 아닌 질적인 소통의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접적 이해와 감성적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 마. 교육사랑방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